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문무현¹, 한진환^{2*}

¹동국대 박사 수료, ²충청대학교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s on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

Mu-Hyeon Moon¹, Jin-Hwan Han^{2*}

¹Dept. of Multiculture, Dongguk University, ²Chung Ch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 및 직업교육 등을 받는 국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중 279명을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지지의 정보적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항에서는 정서적지지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한국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댁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지를 해주어야 한국에서의 안정된 정착과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effect rel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o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ttend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order to take language education and job education. Total 279 were selected as valid samples. The specific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Secondly, the informational support in the family support has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ut evaluative and material support have positive (+) effect. In the interaction with self-efficacy, the emotional support has negative (-)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evaluative and material support has positive (+)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informational suppor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e key factor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n married immigrant women is the Korean family. Therefore, their quality of life can be enhanced as well as stable settlement in Korea if the families of husbands accept married immigrant women as their family members and support them.

Key Words : Self-efficacy, Family support, Quality of life,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Jin-Hwan Han(han9597@naver.com)

Received May 14,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22, 2018

Published July 28, 2018

1. 서론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로 결혼이민자가 2005년 75,011명, 2011년 2월 142,387명, 2013년 150,865명, 2016년 152,37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11월 현재 결혼이민자 155,157명중 여성 83.8%, 남성 16.2%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 남성의 5.17배를 차지하고 있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1월호), 우리나라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집단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은 원활하지 못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 극복 문제 외에도 빈곤,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양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부족,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 국적취득의 어려움과 체류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문제는 우리사회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이들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점차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삶의 정보를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의 태도는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력을 미치며[3-7], 자아존중감, 삶의 질, 사회적지지가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3, 4, 8]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사이에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가족지지의 영향력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지지체계의 구축을 확립하고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지지체계 구축 및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응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으로 이런 사회적 지지 안에는 가족의 지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생활하기 시작하여 그 안에서 보호받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장, 성숙, 노화의 과정을 밟으며 또한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9].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기능적 소통이 있을 때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우울, 불안 및 공포, 절망 등의 심리적, 정서적 부정성을 감소시켜주며[10],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기본단위로서 출산, 자녀양육, 사회화 그리고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은 가족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호의존적 체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족체계를 ‘나비 모빌(mobile)’로 비유하면서 어느 한 개체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다른 개체의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발생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1].

가족지지에서 지지란 인간은 누군가와 의 연관성을 지니며, 욕구 충족과 지지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붙들어서 버팁, 부지하여 지님’ 등의 뜻을 의미하는 말로서 [12], 지지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와 상호작용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가족지지(family support)는 가족구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돌보아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는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 기능을 의미한다[13]. 가족지지는 가족에게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가족지지가 나타나면 가족간의 서로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적응하게 된다[14]. 가족지지의 방법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격려나 도움, 배려 행동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15]. 이상과 같이 가족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주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지지는 박지원(1985)이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하위요인으로 사용하였다.

2.2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16], 노인정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들[17-19]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인정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0].

이외에도 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24].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25],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6].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3],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7].

또한 다문화사회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삶의 질 평가지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즉, 개인적 요인,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추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3,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을 것이다.

2.3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사회적 집단에게서 받는 정서적·정신적 도움'으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역할을 하거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9]. 다시 말해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의 가족, 친척,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도움을 의미한다[30].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특히 남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기대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지지행동이 배우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33].

가족지지에 대한 연구는 자녀양육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남편의 지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양육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34]. 따라서 양육에 있어 남편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요인이 된다[35]. 자녀양육에 있어 안정적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충실감과 행복감을 인지하고 남편과 함께 자녀양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 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6].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와의 관계와 동시에 부부간의 관계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한다[31-33].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에 사회적지지가 조절 및 매개의 역할을 하며[3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역시 배우자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8].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삶의 정보를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의 태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II 가족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II-1 정서적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II-2 정보적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II-3 평가적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II-4 물질적지지는 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간에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가족지지를 조절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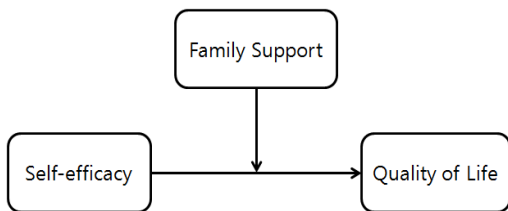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표집과정을 거쳤다. 2017년도 10월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하였고, 본 조사

의 목적에 동의하고 설문조사를 수락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통역을 맡아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284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27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 21를 이용하여 기초분석과 Cronbach's α 계수,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20대 46.6%, 30대 48.4%, 40대 5.0%이며, 남편의 연령은 20대 1.1%, 30대 5.4%, 40대 91.8%, 50대 1.8%로, 주로 20대에서 30대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평균연령이 31.25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43.14세로 남녀간의 나이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는 베트남 36.2%, 중국 35.5%, 필리핀 7.2%, 일본과 몽고 6.8%, 캄보디아 2.2%, 기타국가(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5.3%였다. 종교는 불교 38.4%, 기독교 30.1%, 무교 11.8%, 기타 19.7%이고, 거주기간은 74개월 이상 5.0%, 49개월-73개월 10.8%, 25개월-48개월 17.2%, 24개월 이하가 67.0%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69.2%, 1명 26.2%, 없음 4.7%이고, 평균소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 39.8%, 200만원-300만원 미만 41.9%, 400만원 이상 12.5%, 100만원-200만원 미만 5.7%으로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458여만원¹⁾인 것과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는 남편과 자녀 51.3%, 시부모와 남편, 자녀 42.7%, 남편 3.9%, 시부모와 남편 0.7%, 기타 1.4%이고, 결혼한 이유는 본국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58.8%,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25.4%,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13.6%,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1.1%, 기타 1.1%로 나타나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변수의 측정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정도로서 정의한다[39].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1) 통계청 2017년 9월 자료.

자아성을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며, Rosenberg(1979)의 척도를 서혜정(2008)[40], 임재란 등(2017)[41]이 번안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것을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서혜정(2008)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alpha=.80$ 이었다. 척도내용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 등 자기와 관련된 진술문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됨됨이, 성질, 장점,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scale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지지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지지로, 배우자의 지지는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에 반응하는 것으로[42],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30]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간으로 UNDP project에서 수정, 보완 제작한 것으로 정서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4문항으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지원(1985)에서의 사회 지지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0.93$ 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은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지지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써 사랑, 친밀감, 문제에 대한 관심, 의지, 일에 대한 관심, 용기를 줌, 둘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한 돈이나 물건, 시간 등의 제공, 셋째,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조언, 충고, 설명 등, 넷째, 평가적 지지는 칭찬, 인정,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의 항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이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일상생활관련 삶의 질로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삶의 질 척도(WHOQOL)로서 횡문화적으로 적용가능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성길 등(2000)[43], 김향수, 김송순(2017)[44]이 각 문화권에서 WHOQOL을 표준화할 때 시행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된 한국판 단축형 삶의 질 척도(WHOQOL-BREF)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의 삶의 질 척도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소득에 만족한다’,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모국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여가생활에 만족한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 최종 항목 수를 기초로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실시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self-efficacy	8	.891
family support	17	.912
emotional support	6	.904
informational support	4	.860
evaluative support	4	.804
material support	3	.895
quality of life	5	.951

신뢰성분석에서 신뢰성 계수는 Table 1과 같이 자아존중감 .891, 가족지지 .912, 정서적지지 .904, 정보적지지 .860, 평가적지지 .804, 물질적지지 .895, 삶의 질 .951로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이며, 요인 적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중복 적재되거나 공유치(communality)가 .30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된 문항은 제거하는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변수에 대한 탐색요인 분석 결과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측정된 결과 요인은 1개로 분산 설명력이 56.913%,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4개로 분산 설명력이 74.621%, 결과변수인 삶의 질에 대하여 측정된 결과 요인은 1개로 분산 설명력이 83.673%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체단위(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분산 설명력이 74.653%로 나타났다.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variable	quality of life	emotional	self-efficacy	informational	evaluative	material
quality of life5	.898	.199	.202	.096	.194	.153
quality of life1	.879	.149	.218	.031	.171	.151
quality of life3	.870	.160	.188	.088	.164	.154
quality of life4	.835	.186	.125	.057	.010	.201
quality of life2	.666	.297	.180	.070	.342	.239
family support1	.165	.862	.146	.217	-.014	.059
family support3	.229	.770	.151	-.039	.192	.026
family support2	.261	.745	.268	.012	.163	.183
family support8	.266	.721	.091	.169	.208	.255
family support9	.042	.713	.131	.128	.364	.161
family support4	.050	.566	.396	.081	.308	.033
self-efficacy4	.300	.344	.698	-.106	.146	.137
self-efficacy8	-.043	.185	.686	.457	-.101	.000
self-efficacy6	.100	.132	.680	.322	.438	-.061
self-efficacy7	.179	.113	.666	.363	.200	.056
self-efficacy2	.268	-.014	.658	.108	-.029	.263
self-efficacy5	.253	.333	.636	.113	.099	.231
self-efficacy1	.157	.266	.586	.350	.321	-.120
self-efficacy3	.286	.389	.530	-.133	.104	.326
family support15	.037	-.093	.135	.843	.225	-.089
family support15	.118	.145	.164	.789	.128	.189
family support17	-.027	.054	.221	.747	-.126	.404
family support16	.156	.370	.145	.712	.085	.249
family support5	.165	.351	.097	.062	.774	-.002
family support6	.244	.214	.226	.159	.746	.231
family support7	.257	.286	.199	.038	.733	.133
family support10	.072	.021	-.050	.118	.522	.295
family support11	.266	.154	.147	.238	.036	.801
family support12	.346	.330	.191	.132	.129	.702
family support13	.374	.160	.146	.152	.296	.699
eigenvalue	4.606	4.544	4.093	3.285	3.094	2.774
variance	15.354	15.148	13.644	10.948	10.314	9.246
cumulative variance	15.354	30.502	44.145	55.094	65.407	74.653

4.2 가설의 검증

연구 요인들간 서로의 방향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 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0.8이상이면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값이 0.8이상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45].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elf-efficacy	emotional	informational	evaluative	material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1					
emotional	.602**	1				
informational	.509**	.355**	1			
evaluative	.478**	.578**	.343**	1		
material	.492**	.499**	.440**	.507**	1	
quality of life	.538**	.515**	.274**	.509**	.611**	1

* p< 0,05, ** p<0.01.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1단계에서는 삶의 질에 대하여 통제변수만(연령, 남편연령, 종교유무, 거주기간, 자녀수, 학력, 남편학력, 월평균소득)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추가하고,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의 하위변수를,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3단계 회귀식의 R²과 4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회귀식의 R²(ΔR^2)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을 검증한 결과(Table 4-model 2 참조)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beta=0.051$,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quality of life							
	model1		model2		modl3		model4	
	B	t	B	t	B	t	B	t
constant	2.223	3.132	1.447	2.194	1.584	2.680	.642	.590
age	-.028	-1.803	-.017	-1.201	-.022	-1.669	-.030	-2.345*
husband age	.004	.201	-.012	-.597	-.023	-1.354	-.017	-.988
religion	-.442	-3.334**	-.412	-3.390**	-.355	-3.317**	-.567	-4.534**
residence	-.004	-1.779	-.004	-2.284*	-.007	-4.377**	-.007	-4.015**
children	.344	4.780**	.263	3.931**	.253	4.269**	.227	3.882**
education	-.203	-3.687**	-.156	-3.067**	-.102	-2.198*	-.140	-3.033**
husband education	.193	3.585**	.216	4.351**	.089	1.771	.072	1.456
average] earnings	.390	6.943**	.263	4.830**	.083	1.472	.107	1.915
self-efficacy(a)			.051	7.241**	.030	4.025**	.075	2.086*
emotional(b)					.075	1.086	1.330	4.397**
informational(c)					-.115	-2.450*	.353	1.236
evaluative(d)					.294	3.879**	-.424	-1.259
material(e)					.349	6.699**	-.204	-.716
a x b							-.047	-4.276**
a x c							-.016	-1.589
a x d							.026	2.269*
a x e							.021	2.046*
F	24.678**		30.883**		34.887**		29.444**	
R ²	.412		.508		.631		.657	
ΔR ²			0.096		0.123		0.026	

* p< 0.05, ** p<0.01.

p<0.01) 것으로 나타났다. R²= .508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508이다. F 값은 자유도(9, 269)에서 30.883이며, 추정된 회귀분석모형의 p-value는 p<0.01로 나타나 본 회귀분석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 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6, 26]와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다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설 II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3에서 가족지지의 하위요인과 모형4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하위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족지지의 하위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에 정보적 지지(β= -.115, p<0.05)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평가적 지지(β= .294, p<0.01), 물질적 지지(β=

.349, p<0.01)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지지(β= .075, p>0.05)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model 3 참조). 또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정서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47, p<0.01)이 삶의 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지의 평가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26, p<0.05), 가족지지의 물질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21, p<0.05)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지의 정보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항(β= -.016, p>0.05)은 삶의 질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가족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지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

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원가족과 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삶의 질에 대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한 R^2 값은 .026 ($p < 0.05$)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II-3, 4는 채택, 가설 II-1, 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지지체계 구축 및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 및 직업교육을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여, 279명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을 다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지지의 정보적 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항에서는 정서적 지지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항은 삶의 질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가족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지지의 하위변인 중 평가적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가족들에게 받는 기대와 평가

에 의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한국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의 평가나 물질적 지지를 통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결혼이주여성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댁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지를 해주어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리더십 양성교육, 다문화 서포터즈 학습 멘토링, 가족상담, 다문화 배우자 부부교육 등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 및 이 과정에서의 가족지지의 조절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연구에 가족지지의 조절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연구모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검증함으로써 좀 더 다차원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는데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행동에 대한 올바르게 공정한 평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주며,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물질적 풍요는 아닐지라도 경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금전, 시간, 제품들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가족의 지지가 삶의 질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만

큼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 나라의 언어도 학습하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가별 문화체험 시간을 계획하고 타 지역들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수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소외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이야말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주로 캄보디아,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 국제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적 특이성이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미국, 유럽 등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그 실증결과들이 불일치 한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 있어 외적 영향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여러 외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앞으로 연구설계에서 외적 요인들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변수의 측정에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Self-report)방식으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동일방법 오류로 인한 판단오류나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조사대상인 결혼이주 여성은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들로서 편향이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는 표본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더 본질적인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4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시계열(Longitudinal study)연구를 진행하여 한 시점의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B. S. Kwon.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 [2] K. H. Shin & S. Y. Yang. (2006). Marital Conflicts of Intermarried Families in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5), 1-8.
- [3] E. Ju. Koo. (2009). *Relevance of stress for cultural adaptation, domestic violenc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ost-traumatic stress to psychological health of female 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Dept. of Education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4] K. S. Song. (2010).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Adjust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master's degree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onam University, GwangJu.
- [5] B. H. Lee. (2006).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the disabled in residential institutions on their quality of life*, master's degree Thesis, Rehabilitation Service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 [6] B. N. Gu. (2010).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Focusing on the elderly living in Ulsan, Korea.*,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gang University, Seoul.
- [7] E. J. Lee. (2007). *Rest-activity rhythm, sleep pattern and quality of life in restless legs syndrome*,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 [8] H. P. Heo. (2007). *Quality of life married Women who live in Cheonan from abroad*, master's degree Thesis, Major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of Dankook University, Seoul.
- [9] M. S. Kim & A. N. Kim. (2012). The Impact of Korea Immigrant Women's Resources on Their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and Life', *Family and culture*, 24(2), 64-100.
- [10] E. M. Cott & J. E. James. (2008). Role of the family support person during resuscitation. *Nursing Standard*, 23(9), 43-47.
- [11] S. W. Cruce. (1989). *Another Chance*. Palo Alto: Science & Behavior.
- [12] H. S. Lee. (1982). *Korean Unabridged Dictionary*, Seoul: Min-Jung.

- [13] J. Manning-Walsh. (2005).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between symptom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breast canc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4(4), 482-493.
- [14] A. Sammarco. (2001). Perceived social support, Uncertainty, and Quality of life of younger breast cancer survivors, *Cancer Nursing*, 24(3), 212-219.
- [15] Y. R. Oh. (2016). *The Influence of Employment Stress on Job Seeker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Hyo Family Counselling Major of Sungsan Hyo University, Incheon.
- [16] I. S. Lee, T. Y. Um & D. K. Kim. (2007).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and Quality of life, and mediation effect of health control for the recipients of the medical security with a chronic disease, Social Welfare Policy*, 31, 239-259.
- [17] K. O. Chang. (2017). Effect of Depression, Sleep and Self-esteem on Quality of Life of Elders Living at Hom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01-412.
- [18] K. J. Kim & H. J. Kim. (2016).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on the Elde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 of Health Empower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2)(B), 981-994.
- [19] O. S. Shim. (2010). Effects of Stres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Patients on Renal Dialysis, *J Korean Gerontol Nurs*, 12(2), 95-107, August.
- [20] S. J. Lee. (2017). The Effect of Elderly Life Stress and Self-esteem on Satisfaction of Lif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8(3), 1077-1092.
- [21] P. S. Lee. (2008). A Study 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Ostomates, *Health & Nursing*, 20(2), 37-49.
- [22] M. H. Jang. (2008). *The Influence of Wearing Wigs on the Quality of Life the Female Cancer Patients Who Started Losing Hair*,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Pusan.
- [23] Y. M. Byon. (2008). *The Effect of Nursing Facility Services on Protected Old People's Quality of Life*,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 [24] S. H. Kim. (2007). *A Prediction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school children*,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5] B. S. Jeong. (2007). *The Impact of Rural Women's Leisure Activities upon self-esteemed Feeling and Living Quality*, master's degree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26] Y. H. Kim. & K. S. Kim.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17, 157-189.
- [27] D. H. Ham. (2014). *The Effect of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on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degree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of Korea, DaeJeon.
- [28] D. K. Sung & J. Y. Lee. (2010). A Stud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2(3), 749-772.
- [29] S. J. Yang, K. M. Chung & W. K. Kim. (2008).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y-care grandmothers, *The Korean Journal Woman Psychology*, 13(4), 415-432.
- [30]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 [31] D. M. Teti & D. M. Gelfand.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 929.
- [32] S. M. Reece & G. E. Harkless. (1998). Self-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b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4(2), 198-215.
- [33] D. H. Kim & K. E. Lee. (2009). The study on path analysis for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t multi-cultur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2), 77-98.
- [34] H. S. Choe. (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 [35] W. Y. Yu, J. A. Choi & S. Lee. (1999).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s Moth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51-61.
- [36] J. S. Lee. (2003). The influence of the sex role and the

concept of children among fathers' of infant children : In relation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4), 53-67.

- [37] P. S. Lee. (2009). A Study 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Ostomates, *Health & Nursing*, 20(2), 37-49.
- [38] D. H. Kim, S. Y. Kim & H. J. Shin. (2007).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19(3), 53-78.
- [39] M. Rosenberg.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c.
- [40] H. J. Suh. (2008), *A Study on the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 Doctori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Suwon.
- [41] J. R. Lim, Y. K. Han & H. H. Kim. (2017),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09-119.
- [42] C. E. Cutrona. (1996). *Social support as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a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 In G.R. Pierce. B. R. Sara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pp. 173-194). New york: Plenum Press.
- [43] S. K. Min, C. I. Lee, K. I. Kim, S. Y. Suh & D. K. Kim.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 Asssocation*, 39(3), 571-579.
- [44] H. S. Kim & S. S. Kim. (2017),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101-114.
- [45] G. N. Challagalla & T. A. Shervani. (1996). Dimension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effects on salesperso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 89-105.
- [46] P. M. Podssoff, S. B. MacKenzie, J. Y. Lee & N. P. Podsakoff.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문 무 현(Moon, Mu Hyeon)

[정회원]



- 2016년 2월 : 동국대학교 국제다문 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8년 5월 : 경남 금화사 재직중
- 관심분야 :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
- E-Mail : mhsik6@naver.com

한 진 환(Han, Jin Hwan)

[정회원]



- 2000년 8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8년 5월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 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삶의 질

▪ E-Mail : han9597@naver.com